세계불교 온라인 미디어의 현주소

다양한 컨텐츠만이 살길

불교 미디어는 인터넷에서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을까? '사이버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오프라인 미디어의 온라인 진출이 디지털 시대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불교 신문 · 잡지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다.

불교 미디어들은 전문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일간보다는 계간이 많다. 대표적인 계간 잡지로는 <트라이시클(Tricycle)>, <샴발라선(Shambhala Sun)>, <만달라(Mandala)> 등이 있다.

일간 사이트의 경우, 오프라인 매체의 온라인 화보다 메일링 서비스 형태로 기사를 제공했다. 또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기보다 매일 타 미디어의 불교관련 소식을 모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실정이다. '담마 타임즈(The Dhamma Times)'가 그 대표적인 예다. 싱가포르 불교사이트 중 최대규모인 '더데일리인라이트먼트(The Daily Enlightenment)'도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대만 자제공덕회에서 발행하는 격주간 신문 '자제도여'와 월간 <자제>, 불교예술 전문지인 <어서나(Urthona)>, 티베트 불교 선사들의 가르침과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는 <부디즘 투데이(Buddhism Today)> 등이 인터넷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 미디어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활성화 된 사이트 일수록 단순한 기사 제공에서 벗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쇼핑, 토론 공간 등 네티즌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려한 노력이 엿보였다. 다시 말해 완전한 포탈은 아니지만 준 포탈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온라인 진출 디지털시대 필수
대부분 타매체 소식 모아 서비스
활성 사이트 일수록 충족도 높아

이같은 불교미디어들이 보다 활발한 홍보를 통해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사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컨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 미디어에 주어진 과제다.

특히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등 국내 불교미디어 사이트들은 전 세계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영문 서비스 개설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 트라이시클 (Tricycle- www.tricycle.com) : 국내에도 잘 알려진 불교종합정보지. 1991년에 창간된 비영리 계간지.

▣ 만달라(Mandala- www.mandalamagazine.org): 30년 전 티베트의 승려인 섭튼 예쉐(1935-1984)가 설립한 국제기구인 FPMT(Foundation for the Maha yana Tradition)에서 발행하는 잡지.

▣ 샴발라선(Shambhala Sun, www.shambhalasun.com):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불교시사 계간지. 불교뿐 아니라 예술, 정치, 대중문화 등 현대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을 불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잡지다.

▣ 담마타임즈 (The Dhamma Times, groups.yahoo.com/group/dhammatimes): 사이버 일간인 담마타임즈는 일반, 교계 미디어를 막론하고 그날 보도된 불교관련 소식을 야후 그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더데일리인라이트먼트(The Daily Enlightenment, asp.thedailyenlightenment.com): 메일링서비스 일간. 멤버들의 칼럼, 기고, 싱가포르 불교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의 불경, 불교교리, 회원들 간의 선문답, 불교용품 쇼핑으로 구성됐다. 영어판과 중국어판이 있다.

▣ 격주간 자제도여, 월간 자제(Tzu Chi, www.tzuchi.org/global): 자제공덕회에서 발간하는 자제도여는 격주간 신문, 자제는 중문 · 영문 · 일문 등 3개 국어로 발행되는 월간 잡지다.

▣ 어서나(Urthona, www.urthona.com): 영국에서 발행되며, 불교와 예술을 주제로 한 잡지다. 불교와 관련된 예술,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 부디즘 투데이(Buddhism Today, www.diamondway.org): 미국 캘리포니아 비영리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 센터(Diamond Way Buddhist Center)에서 발간하는 잡지.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① 옥스퍼드 ·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언어학 · 고문헌 연구 활발
빨리성전협 세계 대표 학술단체
100여년간 경전 번역 · 연구 독보적

8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양의 대학과는 달리 불교학과가 따로 분리돼있지 않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원전연구와 인도철학이 불교관련 학과로 주류를 이뤄 주로 박사과정에만 독립된 '불교학 학위과정'이 있다. 옥스퍼드 역시 석사과정에서 인도종교학 학위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에서 원시불교, 대승불교, 빨리경전 등 불교학 과목의 연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동양학부 내 인도학과에서 불교공부를 할 수 있기도 하다.

'옥스퍼드'하면 영어사전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옥스퍼드는 인문학이 가장 잘 발달돼 있으며, 특히 문헌학과 언어학은 오랜 전통과 함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연구 또한 이와 같이 철학적인 접근보다 언어학과 고문헌에 대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13㎞ 떨어진 옥스퍼드의 명소 '브렌하임 궁전'의 모습.

옥스퍼드에는 불교학의 권위자 곰브리히 교수(R.Gombrich)가 있으며 그는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 www.palitext.demon.co.uk)의 회장을 맡고 있다. 빨리성전협회는 영국 불교학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불교학술단체로 손꼽힌다.

영국의 집정관으로 스리랑카에 방문했던 리스 데이빗(Rhys Davids) 부부에 의해 1881년 영국에서 창립된 빨리성전협회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빨리 문헌 연구의 기본 텍스트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후 100여 년 동안 동 · 중아시아에서 들어온 대부분의 경전을 번역 ·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쌓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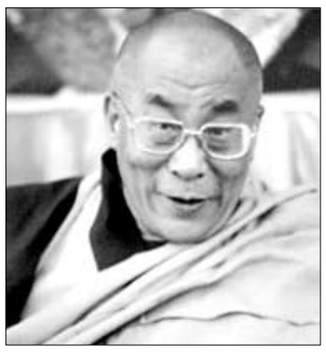
이들은 빨리어 삼장(三藏) 모두를 번역해 영국 불교학의 학문적 배경과 초기 인도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영어로 번역된 빨리 경전 150여권이 출판되었으며, 학회는 현재까지 주석서 번역에 주력해오고 있다.

옥스퍼드는 이밖에도 런던, 캠프리지 대학 등과 함께 영국 대영도서관의 돈 황프로젝트(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스타인 박사(Aurel Stein 1862~1943)가 인도, 중국,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해 유럽으로 들여온 경전을 번역, 판본을 연구해 디지털 경전을 만드는 사업이다.

한상희 기자

달라이 라마 9월 17일 뉴욕 방문

4일간 매일 2회 강연 · 공개토론 개최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9월 1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달라이 라마는 매일 2회의 불교 강연회와 공개 대화의 시간(21일)을 가질 예정이다.

17일부터 21일 브로드웨이 74번가에서 열리는 불교강연회에서는 불교 수행과 철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달라이 라마는 21일 센트럴파크에서 뉴욕의 불자들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갖는다. 11세기 인도의 성자 아티샤(Atisha)의 글인 '보살의 보석 화관(The Boddhisattva's Jewel garland)'을 주제로 해, 어떻게 마음을 수행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1일 오후 7시 링컨센터에서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콘서트'가 개최된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스리랑카, 불교사전 편찬 박차

스리랑카 불교부(部) 로쿠반다라(W. J. M) 장관은 스리랑카 불교자문단에 '영문 불교 백과대사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스리랑카의 선데이 옵저버가 8월 10일 전했다.

1955년 스리랑카불교협회가 불기 2500년을 기념해 최초로 발간작업에 착수한 바 있는 영문 불교백과대사전은 현재 알파벳 'L'에 해당하는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이는 1961년 21권의 분책(分冊)으로 발간된 바 있다.

로쿠반다라 장관은 "향후 5~6년 이내로 이 사전의 편찬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백과대사전은 각권마다 8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총 11권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또 각권의 내용을 4권 정도의 분책으로 함께 발간하게 된다.한상희 기자

대만의 우란분절에 3만명 참석

한국의 우란분절에 해당하는 '전국 공불재승(供佛齋僧)' 법회가 8월 17일 대만 북부 타오위엔현 국립 체육대학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국가및 사회를 위한 기복행사와 함께, '효'에 대해서 선양한 이날 행사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출, 재가 불자 3만여명이 동참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신비의 약알카리 중탄산 약수

그동안 확실한 영가천도 도량으로 영험을 자랑하던 정토사에서는 우리몸에 가장 좋다는 (약알카리와+중탄산 약수) 우리나라에서도 한곳에만 나온다는 약알카리수에도 중탄산수는 함유되지 않았으나 정토사에서는 두가지성분모두 있으며 미네랄 성분인 양이온 나트륨 칼륨 칼슘 게르마늄등이 들어있어 과히 최고의 약수라고 자부합니다.

정토사의 약수는 지하 암반에서 나오는 순수한 자연그대로의 천연 약알카리와 중탄산 두가지 모두있는 암반 지하수입니다.
이 약수로 난에 15분정도 화분을 담구어 물을주면 약 4-5일정도 지나면 일반물로는 살려낼수없는 미세하고 아름다운 꽃의 색깔이 살아나오고 꽃의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 중탄산수의 성분이 있어 장이 안좋아 변비나 된변을 보시는분 매일 변을 못보시는분은 정상인과 같이 하루에 한번 무른변을 보게됩니다.
그외 많은 좋은점이 많으나 생략합니다.

그동안 물량이 넉넉지않고 수질오염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으나 불자님 들께 이 신비의 약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jto3390@naver.com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 031-775-3350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 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답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 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계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게)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